

미국에서의 암 치료: 통례와 예상

미국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암을 다루는 의사들과 다른 전문 의료진의 통례와 예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히 의사와 환자들이 소통하는 데에서 더 그러합니다. 예를 들면:

- 의사들은 대부분 암 환자와 직접 대화를 합니다. 가족분들도 포함할 수 있지만, 환자가 가족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직접 자신의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의사와 환자는 치료에 대하여 파트너로 여겨집니다. 의사가 치료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 치료도 할 수 없습니다.
- 의사는 환자에게 정직하게 암의 존재 여부와 치유 가능성, 장기간 치료의 필요성과 암의 심각성을 알립니다. 환자가 만약 이해를 못 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할 때, 환자가 의사에게 질문하여보는 것이 권장되어있습니다. 의사는 항상 환자의 질문과 우려가 해결될 수 있게 시간을 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영어 외의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병원과 진료소들은 통역사를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 여성 환자는 의사가 남성일 때, 언제나 검사 시에 여성 간호사나 직원의 존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통증과 메스꺼움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아무도 고통받지 않아야 합니다. 환자가 통증 또는 메스꺼움을 다른 증상이나 부작용과 함께 느낄 때에는 의사나 간호사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고통을 치료받는 것은 종종 환자들이 더욱더 빨리 치유되도록 돕기도 합니다.
- 환자는 언제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시작했다고 해서 꼭 치료를 지속하는 데 전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정보는 기밀이며, 의사들은 환자의 허락 없이 의료정보를 관련된 의료진 외에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 환자들은 종종 치료의 재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걱정합니다. 수술이나 치료는 얼마지? 보험은 얼마를 지급하지? 내가 만약 돈이 없거나 치료비를 낼 형편이 안되면 어떡하지? 만약 당신의 재정에 대하여 걱정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사회복지사들, 환자 내비게이터들과 병원의 사무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미국에서 흔한 통례 중 일부이지만, 환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고국의 문화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와 병원들은 가능한 한 사람들의 뜻에 수용할 의지가 있으므로, 환자들은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들은 미국에서 흔한 통례 중 일부이지만, 환자의 개인적인 견해나 고국의 문화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의사와 병원들은 가능한 한 사람들의 뜻에 수용할 의지가 있으므로, 환자들은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